

김영희 '72

성도의 빛 5
197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롭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밴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처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통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웬 러셀 밸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모범의 힘.....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악감정을 품지 않고.....제프리 버틀러..... 5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8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에드 앤 도릿스 부처.....11

마르타의 승리.....플 더블류 로빈슨.....16

알코올 중독
(이해와 패유를 바라며).....제임즈 알 굴리치.....22

생각만으로는 충분치 않음.....렉스 시 리브.....30

아름다운 화음.....캐드린 루백.....33

동물원.....38

꿀벌 마차.....아일린 시 블랙.....40

허버 제이 그랜트.....하워드 바우너.....44

지역 지도자 메시지.....김 차봉 서울 서 선교부장.....46

해외 소식.....48

지역 소식.....50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9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위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02호, 제18권 제 5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주

모범의 힘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지만, 최근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 말일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거리로 등장하게 될 때—정부 고위 직책에 임명되는 사람에 관한 것이든 또 범법자에 관한 것이든—대체로 그 기사에는 그들이 “물론”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종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더욱더 잘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나는 이를 오히려 기뻐할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범에 따라 친구나 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의 계율을 좇으며,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훌륭한 모범을 통해서 성취된 감동적인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인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최근에 읽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비회원이 한 이야기인데, 그는 10여 년 전, 어느 연쇄점의 부책임자로 일할 때, 16—18세의 학생들을 고용해 야간 교대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어떻게 해서 16, 17세 쯤 된 물론 소녀를 고용하게 되었는지 또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모범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 보아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으로써는 그녀를 충분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그녀는 정말 눈에 띄게 훌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친구 한 명을 고용했는데, 그녀 역시 모범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다 다른 고용인과 고객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그들의 물론 친구들

우리는
일할 때나
놀 때나 학교에서나
또는
자신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것들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을 더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볼 때, 그들은 내 밑에서 일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습

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신뢰하지 못할 행위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것처럼 훌륭한 고용인이나 직장 동료라면 누구나 함께 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저녁 식사때 핏자가 먹고 싶었지만, 상점을 비울 수가 없어서, 한 물론 소녀를 시켜 핏자를 사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가 조그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심부름으로 갔던 것이므로 그가 그녀의 자동차에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책임이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만한 연령으로 그러한 성품을 갖춘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지 않았으며, 그 일을 잊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을 통해 최근에 몇몇 말일 성도 선교사들을 만나 보았으며, 함께 복음 토론을 하고,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그 소녀들에게서 느꼈던 좋은 점을 내가 만나 본 물론 성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족을 중요시하는 점을 좋아하며 그들은 내가 이제까지 만나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실린 개종에 관한 기사에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범은 개종하는 데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됨” 우리는 몇몇 회원이 모범을 통해 구도자를 개종시킨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모범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어떻

게 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고 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곳에서 자신을 준비한다
 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들은 영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화로운 원리를
 만방에 전해야 할 기회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알고 그에 대
 한 간증을 갖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가
 정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참으로 축복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한 부모는 자녀
 들이 영원히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누
 릴 수 있게 가르치고, 그들이 불사불멸
 과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 줄 책
 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
 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
 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
 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
 처야 하느니라.”(교성 68 : 25, 28)

우리에게는 합당한 부모가 되는 것
 보다 더 큰 책임이나 특권이나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장하면서 내
 가 주님의 육신의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였으며,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홀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아
 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해 왔습니다. 부

모님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십시오으로써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명예
 롭고, 의로우셨으며,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셨으며, 하나
 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소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들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내
 가 늘 옳은 일을 하고, 주 앞에서 올바
 르게 생활하며, 내 친구와 친지로부터
 신임을 받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
 이 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
 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
 며, 필요에 따라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부모
 님들이 언제나 옳은 일을 하며, 나와
 이웃을 공정하게 대해 주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문
 제를 의논할 그러한 부모가 있다는 것
 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내가
 아른 신권을 소유했을 당시 나의 감독
 이며 또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시
 기도 하였던 나의 부친은 내게 신권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친은
 신권의 중요성과 우리가 따라야 할 유
 일하고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을 갖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
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돌아가셨음을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주께서 가르치신 대

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나 놀 때나 학교에서나 또는 자신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때라도, 다른 사람에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없이 진리를 수호하고 때로 우리를 대적해 오는 박해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징조, 새로운 문제, 새로운 의사 전달 방법의 시대에 직면하여, 산 위의 햇불과 같은 역할을 할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산상 수훈에 들어 있는 구세주의 권고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질은 안개가 낀 런던 거리를 한 소년

이 회중 전등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면 1실링을 주겠다.” 안개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네, 그러지요.”

그래서, 소년은 회중 전등을 높이 들고, 안개 속을 걸어 곧 호텔에 닿았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자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1실링씩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빛을 보고 아무런 의심없이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빛과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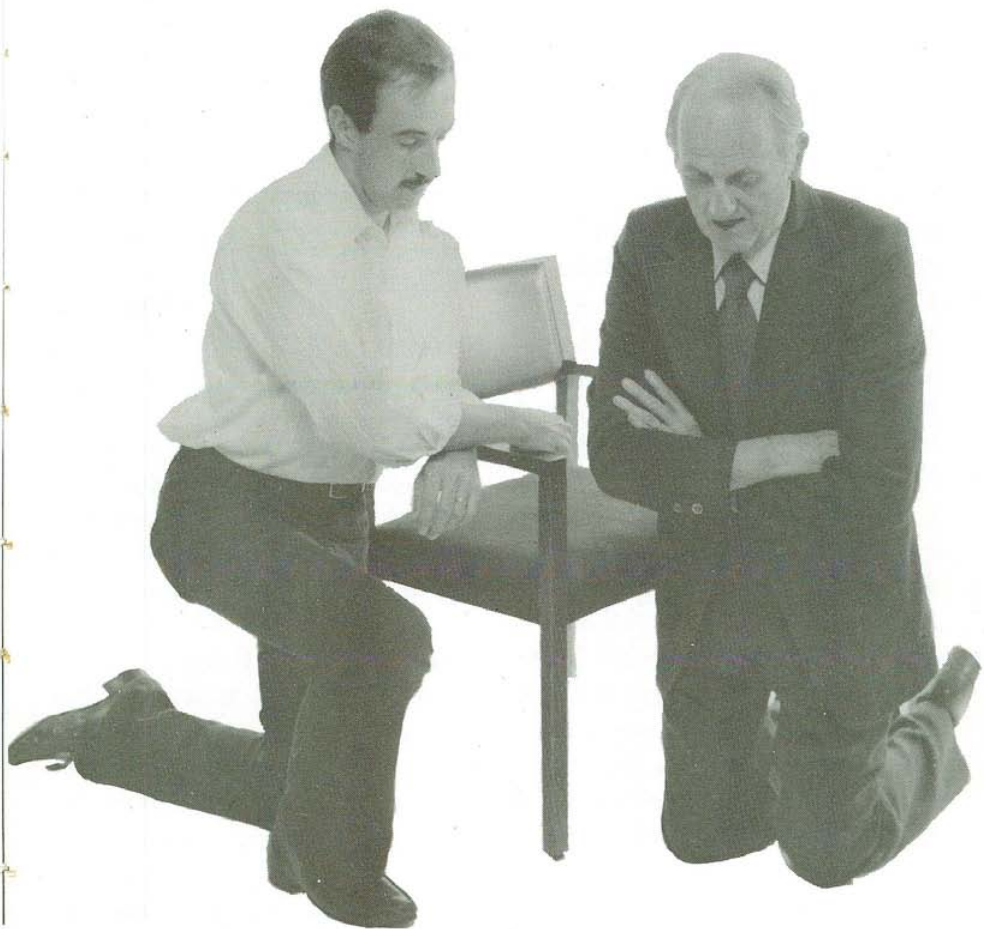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모범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나누게 한다.
2. 이 기사 중에서 가족이 큰소리로 읽을 수 있는 성구 또는 기타 인용문이나, 그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3.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를 토론한다. 모범이 그처럼 영향력이 있는 교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의로운 모범을 보이는 것과 독선적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이 외적인 행위와 일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5. 방문하기 전에 그 집의 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더 효과적이 될 것인가? 모범의 영향력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악감정을 품지 않고

제프리 버틀러



큰 슬픔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려 했으며 모범으로 그 방법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받는 고통을 덜어 주려하는 그의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연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슬픔에 젖은 가족들에게 불행한 트럭 운전 기사에 대하여 가질 수도 있는 분노의 감정을 물리치도록 하라고 권유함으로써 브라운 형제가 한 말씀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틀 뒤에 그는 다 망가진 차에 남겨진 물건을 챙기는 서글픈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애타간 무서운 참사를 당한 후 보험 회사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건의 전말을 돌이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탄에 젖은 그는 그날 밤 자신이 트럭 운전사에게 불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결심이나 한듯이 차를 타고, 그 젊은 운전 기사의 집으로 가 그와 마주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약간 놀라 불안한 듯 보였으나 브라운 형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형제가 함께 기도하겠느냐고 하자, 그는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

었습니다. 브라운 형제는 슬픔을 누르려 애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지게 된 비극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운전 기사는 아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브라운 형제는 그 젊은이의 얼굴이 긴장되고 창백한 채 표정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보고 두 팔을 그의 어깨에 얹고, 부드럽고 평화스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요. 당신이 마음속의 감정을 다 토로해 내기 전에는 당신을 혼자 놔 둘 수가 없어요.” 젊은이는 말없이 일어나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브라운 형제의 팔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젊은이의 아내도 이러한 사랑의 분위기에 말려들어 내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아주 허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사고가 난 이후 처음으로 지금에야 말을 하는군요.”

물론, 브라운 형제의 신앙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채 여러 해 동안 외롭게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매일을 이겨 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신은 그가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엡 4:13)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나는 요즘 아내가 내 생애에서 맡은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루스 장노님, 당신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소?” 라고 물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금방 “별 수 없었겠지요.”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영혼을 깨우는 것이어서 나는 그 다음 24시간 동안 아내의 애정 어린 내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패커 장로의 질문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결혼 생활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혼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훌륭하게 지속되었음을 아내에게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했기보다는, 훌륭한 반려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갖게 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곧 아내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껏 살아오면서 전혀 꾸밈 없는 큰 사랑을 우리 집안의 훌륭한 여성들, 즉 아내, 어머니, 장모님, 할머니, 딸, 그리고 귀여운 손녀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나를 가장 크게 바쳐 준 힘은 내가 아내에게서 느낀 변함없고, 아무런 조건도 꾸밈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반려자와의 성스런 관계는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의 반려자인 아이다 롬니 자매님이 1979년에 세상을 떠나신 며칠 뒤에 그가 한 말씀이 아직도 컷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신전에서 가진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무언가 내게서 빠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밀어 주던 힘이 빠져 나간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잘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어더든지 부인을 동반하십시오.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나는 부인을 따뜻하고 사려깊게 대해주는 많은 형제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테이크 부장이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칠십인 제일 평의회 의 에스 딜워스 영 장로가 보여 준 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내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범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그의 첫번째 부인인 글래디스 자매님은 뇌일혈로 쓰러져 몸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1964년 사망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영 형제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 부인의 시중을 들어 주며, 식사를 하도록 돕기도 하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 인생에 동안 나는 영 형제가 글래디스 자매에게 보여 준 것보다 더 인자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모범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아내에게 생겼지만 내게는 가장 좋은 일이 생긴 셈이요. 그로 인해 나는 친절을 베풀게 되었오. 또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소.”

대체로 남자들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애쓰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것을 위해 바칩니다. 그러나 나는 영 형제님과 같은 애정과 사려깊은 마음을 지닌 모범적인 남편을 통해,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남편과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집 밖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보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아내가 집에서 한 일은 내가 집 밖에서 한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곁에서 같이 있어 주고 인정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면,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품위를 지니게 되며, 무한히 큰



보이드 케이 파커

“당신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소?”

힘이 되어 주는 사랑을 받게 되어 어떤 어려움이든 능히 이겨 나가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점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남편되는 우리들은 아내들이 직관과 신앙심과 사랑의 거룩한 은사를 축복받았음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신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축복을 활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부드럽게 이끄는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성스러운 부름의 해야 할 바를 더욱 잘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애정에 찬 기도는 우리 생활을 운택하게 하며, 우리 성품의 모가 난 곳을 부드럽게 순화시켜 줍니다.

웬 엘돈 태너 부대관장의 따님인 이 사벨 자매는 부친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 아버지는 농사꾼에 지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태너 자매님이 남편에게 애정어린 제언을 하면, 그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오.”라고 솔직히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인 것이 태너 부대관장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들 중에서 친절하고 사랑



매리은 지 름니

“아내에게 잘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스런 부인의 도움없이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을 잊고, 그들의 내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분신과도 같은 반려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기뻐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와 가족에게 신권을 통해 줄 수 있는 축복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것은 신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신권의 축복은 남성 또는 남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관계에서 잠재 능력을 꽃피워 이 큰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까지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순종을 통해 영생과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아내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우리의 협력자로 모실 때 우리는 참으로 큰 평안과 행복과 단결과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

으며, 그 복음의 진수는 바로 내가 아내를 매시, 매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영원한 동반자가 없이는 모든 권능을 충만하게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였으며, 또 어떤 가족을 키워 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 : 22)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를 읽어 본 다음에, 남편/아내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론해 보도록 한다.

1. 배우자에게서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도움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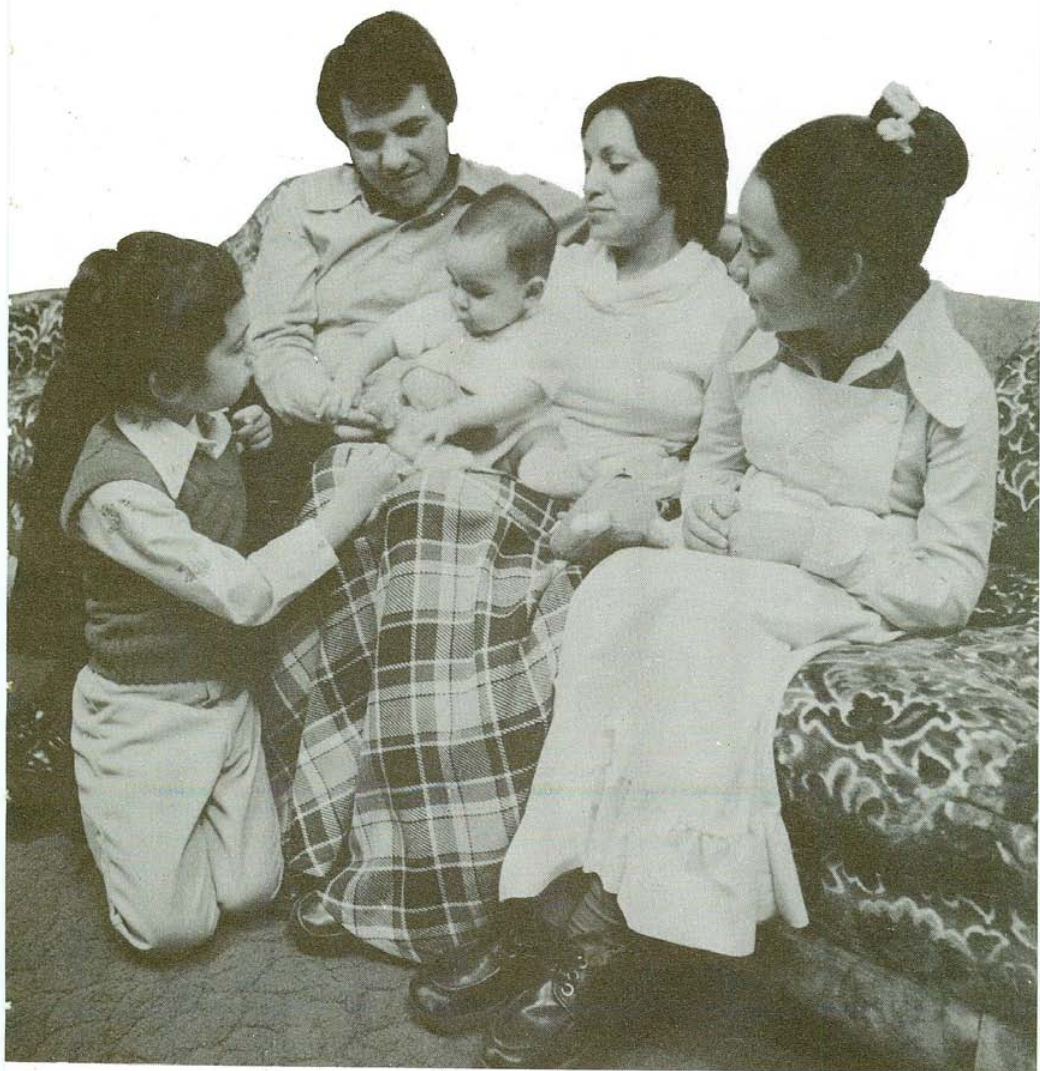
2. 기사 중에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남편과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성공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왜 이것이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기사 중에 “주님을 우리의 협력자로 모실 때, 우리는 참으로 큰 평안과 행복과 단결과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주님을 협력자로 삼을 수 있는가?

4.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을 열거해 본다.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한다. *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에드, 앤 로잇슨 부처



헨슨 부부는 훌륭한 부모이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자녀의 학교 숙제를 보아 주고 재능을 키우도록 권고한다. 그들은 가정의 밤을 갖고 규칙적으로 활동도 한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일치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흔히 있다.

대개의 부부들과 같이, 헨슨 부부는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 현상, 즉 행복한 부부는 대개 자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모가 그들 자신의 관계를 중시하며,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그들은 단순히 인내와 관용과 친절과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모범을 보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자녀를 행복하고, 안정되게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의 생활을 행복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상호부조회 공과에서는 부부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적이 있다.

“결혼은 가정내의 모든 관계가 성립되는 기반이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가족간에 생기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되어 나아가는 가정 환경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린이와 다른 사람들과의 갖는 관계에서 본보기가 된다. 어린이가 부모의 관계

에 일부가 되는 방법, 또는 어린이가 부모의 관계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감정은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따뜻하고 애정 어린 행위로 대하면, 자녀는 자신과 그와 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경쟁적 입장으로가 아니라 협동적으로 대하면 어린이가 피를 쓰러 하거나 심술궂게 되지 않고 협동적으로 된다.

“큰 열성을 갖고 결혼 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을 대하게 되면 자녀가 미래의 생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키우기에 필요한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남편인 에드는 직장 일로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가끔 있었다.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문안으로 들어서면, 아내는 우선 자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의심하게 된다. 여러 번 확인을 받고서야 아내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엇갈릴 때, 우리 자녀들이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와 같은 증거로, 우리가 따뜻하고 정다울 때에는 그들도 평화스러움과 안정을 느끼는 것 같다. 부부 생활을 단란하고 사려깊게 해 나갈 때 그들은 더욱더 그렇게 된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 생활을 어떻게 더 잘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인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 원리와 가르침을 적용하는 동시에 모든 부부는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스테이크 부장이며 상담 전문가인 칼 프레드 브로드릭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로드릭 부장님,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도 지키며, 모든 교회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다음 성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성 130 : 20—21)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은 교리와 성약 121편과 로마서 12장, 그 밖에도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원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태도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태도에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로움에 관한 원리보다도 배우고 순종하기가 더욱 힘들다. 그리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

모든 결혼 관계에 대한 원리 중에서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 장은 에베소서 5장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 : 22, 25)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여성은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그를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성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모범에 일부 나타나 있다. (1) 그는 항상 우리를 크게 염려해 주신다. (2) 그는 우리를 아신다. (3)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셨다.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돌보고 예의를 갖고 대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섬기고



도와 주어야 한다. 서로를 생각해 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주께서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개인 및 가족으로서 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때로는 특별히 서로 돌보고, 이해하고, 도와 주어야 할 시기가 있다. 즉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가족이 이사할 때, 배우자가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배우자가 피곤해 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배우자가 교회 직책을 맡았을 때, 회사의 휴가 기간중 일요일이 끼어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서로를 좀더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틈이 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축복문을 읽고 개인 일지 또는 가족 역사 기록을 함께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심으로 서로의 가족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그들을 좀더 잘 이해

하려 함으로써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자녀가 생기고 일과 교회에서의 책임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쉽게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두 사람만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갖기 위해 자상하게 협동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감정과 품위있는 예절은 쉽게 찌들어 밀려 나게 된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등산도 한다. 병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 집 청소도 해주고, 예산을 세우거나 도서관에도 가며, 아이들을 위해 야유회도 계획한다. 때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이나 영화관에 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 좀더 새로운 기분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관심을 보이게 된다.

함께 하는 시간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부부의 주례 계획 모임이다.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거의 일년이 걸리는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과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부모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때로 우리들이 가족 역사 기록과 편지 쓰기와 같은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일을 할 시간도 계획했다. 우리는 또한 데이트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 가정의 밤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일요일 활동 및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으로 우리는 너무 피곤하거나 게을러 계획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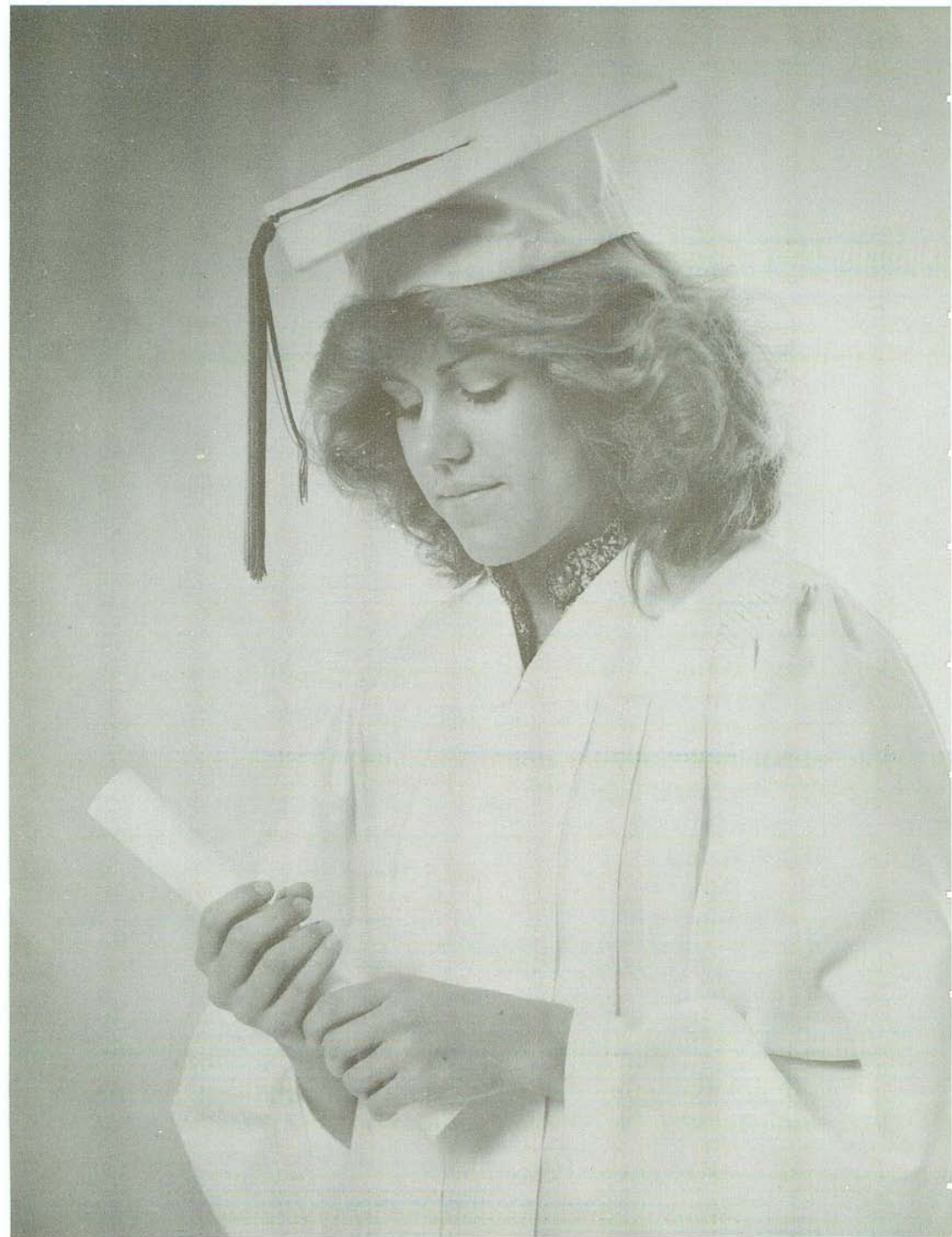
함께 하는
시간으로
없어서는 안될것은
부부의
주례 계획 모임이다.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거의 일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병이 난 사람이 없는 한, 계획했던 것을 시행하자는 규칙을 세웠다. 우리는 규칙에 따를 때,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일요일은 우리가 주례 계획 모임을 갖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대개 시간이 15분 내지 30분 정도 걸리지만, 큰 사건이나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았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를 잘 대하고 서로 알고 섬긴다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가족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더욱 큰 만족을 찾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면, 자녀와 서로의 사이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평화롭게 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해 주시듯 서로를 대한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모두 우리를 떠나게 되고,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인봉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우리는 영원을 통해 계속해서 동반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늘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유대를 강화시키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 곧 성장하고 성취해 나가는 결혼 생활의 기쁨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더욱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마르타의 승리

플 더블류 로빈슨

나 졸업식에서 입을 모자와 가운을 주문해야 해요.” 마르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내 양딸은 18세였으며, 얼마 후에는 고등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8년 전에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정신 박약이었던 10세 소녀가 고등 학교를 졸업하게 되리라고 그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 애가 교회에 들어와 외국에서 선교 사업을, 그것도 고등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하게 되리라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 8년 동안에, 우리는 마르타가 자신을 구속해 왔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말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해 온 것을 곁에서 지켜 보아 왔다. 사회 사업 기관의 직원이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 열흘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왔었다. 담당 간호원은 그녀의 등에 있는 매맞은 자국을 보고, 가족 사업과에 전화를 했다. 그 아버지는 그녀를 빨리 그곳에서 빼내올 수 없게 되자 초조해 하더니, 그녀를 버리고 가 버렸다. 그러자 가족 사업과에서 우리가 그녀를 잠시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 왔다.

마르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첫날은 정말 힘들었다. 그 애는 주로 스페인어를 쓰며 발을 질질 끌며 걸었다. 그리고 출근 마룻 바닥은 내려다보며 거의 들리지도 않는 음성으로 말했다. 가족 사업과에 있는 심리학자들은 그녀를 정신 박약으로 진단했으며, 나 역시 심리

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단이 옳았음을 곧 알 수 있었다.

곧 두 살, 세 살, 네 살 난 마르타의 새 동생들은 신이 나서 그 애를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면서 침실까지 데리고 가서 가족으로 환영해 주었다. 그 애는 아이들이 그 애의 침대에서 힘껏 뛰어올라 벽에 걸린 그림에 손을 대며 노는 모습을 볼까 두려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뒤뜰에서 마이크와 키트가 마르타 주위를 맴돌며 자전거 경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도 아이들은 자기들의 놀이에 끼워 주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마르타는 집안에서 아내, 캐롤을 좇아다니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 그 애는 그림자처럼 말없이 아내를 따라다녔다.

얼마 후에 우리는 마르타를 근처에 있는 국민 학교 특수반에 등록시켰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애들이 그 아이를 때렸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누가 그 애를 때렸오?” 내가 물었다.

“학교에서 남자 아이들 두 명이 그랬대요. 마르타를 울리려 했던 거예요. 마르타가 그 아이들에게 ‘나는 싫어.’ 하고 소리치자, 그들은 그 애를 밀어뜨리고 옷을 찢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울지 않자 때려 주었던 거예요.” 하고 아내가 말했다.

“나는 싫어.”는 마르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할 수 있던 유일한 영어였다. 그 말은 그 전에 그녀를 놀려 대던 아이들에게 했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던 것 같았다. 그것만이 그녀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는 두 소년이 학교에서 혼계를 받는다 해도 마르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없는 다른 일이 또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타에게 놀림을 당할 때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즉 미소를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 차례로 모든 식구들을 재미있게 놀리는 게임을 시작했다. 먼저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곤 했다. “네 귀는 코끼리만큼 크다.” 또는 “너는 팔이 너무 길어 손이 땅바닥에 질질 끌리지.” 하는 식이다. 마르타가 미소를 지으며 반응을 모일 때마다, 가족은 그애를 칭찬해 주곤 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마르타는 놀림을 당할 때 미소로 응답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놀림을 당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놀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대처해야 했던 여러 가지 특별한 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그 애는 위생 습관이 무척 좋지 못했으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았으나, 우리는 밤중에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마르타가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된 지, 처음 몇 개월 동안에, 가족 사업과에서는 그녀의 과거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마르타는 프예르토리코에서 태어났으며, 그애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졌고 여러 해 동안

신체 장애 자녀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 장애가 있는 자녀의
회복을 억제하며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도
마르타가
자신의
신체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기 보다는
장애가 있는
그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친척 집을 전전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푸루카 고모가 마르타를 돌보아 주고 사랑해 준 것 같다.

마르타가 열 살 때,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주로 떠나게 되었다. 그가 그애를 데리고 간 것은 단지 좀더 많은 사회 복지 연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마르타에게 악령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번에 걸쳐 “그녀를 때려 그것을 내어 쫓으려” 하였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도중에 마르타가 병에 걸려, 우리 도시의 병원에 들렀던 것이다.

마르타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내와 내가 흔히 걸리기 쉬운 함정에 빠져 든 적이 한 번 있었다. 예를 들면, 언젠가 마르타와 마이크와 키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나는 잠언 22장 15절과 29장 17절의 가르침에 따라 두 녀석을 때려 주고는 그들의 침실로 보냈다. 과거에 매를 많이 맞은 마르타를 동정한 나머지 나는 그애를 그대로 침실로 보냈다.

그날 늦게 마르타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왜 나는 때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양부모가 범하기 쉬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나는 그애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내가 그애를 때리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시였다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그것을 내가 그애를 다른 아이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표시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의 판단한

태도가 마르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신체 장애 자녀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 장애가 있는 자녀의 회복을 억제하며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도 마르타가 자신의 신체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기 보다는 장애가 있는 그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아내와 나는 그녀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에 무관심한 이 소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보냈다. 다리가 마비된 어린 소녀에게 반복해서 움직여 보도록 권고하는 물리 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녀의 능력을 거듭해서 시험했다. 우리는 먼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머리를 빗거나 혼자 옷을 입거나 잠시 동안 그림책을 보는 일 등이다.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일의 종류를 늘려 갔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의 요구를 시정하여, 다시 시작해 나가는 때도 많았다. 그러나 마르타는 점차 더욱더 꼭 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 감기, 이부자리 정돈, 옷을 다림질해 입기, 혼자서 읽기 등을 배웠다.

그녀가 14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결국 심리적으로 고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힐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녀에게 지식을 추구하도록 자극했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에게 남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올림픽에 대비하는 수영 선수 만큼이나
혹심할 정도로 노력했다. 그녀가 육신의
모든 근육과 뼈에 대한 것을 익히기 위해
서는 같은 반의 급우들보다 다섯 배나더
노력해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해냈
다. 그녀는 스스로 매학기마다 신학 연
구원 중등부의 모든 과정을 신청했으며
교회에 다니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양부모인 우리는 그녀가 계속 침례를
받겠다고 졸라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국가에서 그
애를 보호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언
젠가는 푸에르토리코로 돌려보내야 한
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녀에게 침
례를 베푼다면, 그 친척들은 마르타가
강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까? 단순히 그녀는 친구들이 거의
모든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침례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녀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아내와 나는 마르타가 18
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
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
에 들어간 뒤에, 아내는 내게 마르타가
쓴 편지를 가져 왔다. 마르타는 아내에
게 그 편지를 주며 문법이 맞았는지 검
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편지에서 둘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
었다. “푸루카 고모님, 고모님은 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죠? 물론 교회로
들어오세요. 요셉 스미스라는 소년이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지
금까지 읽어 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읽으
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내를 돌아보며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어 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마르타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소.” 그때 마르타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남아 있는 유일한 문제는 마르타의 고모 푸루카에게 마르타가 침례를 받는다면 화를 내지 않을 것인지 물어 보는 것이었다. 고모는 마르타가 프에르토리코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르타의 유일한 가족인 고모도 허락을 했다.

마르타는 1978년 3월에 침례를 받았다.

5월에 그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문 속에는 그녀가 가족을 개종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었다.

그때 아내와 나는 그 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푸루카 고모가 편지를 보내 일 개월간 그녀가 마르타를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6월에 도착했는데, 그녀는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고, 우리는 스페인어를 몰랐다. 마르타도 옛날에 알았던 스페인어를 모두 잊어버렸으므로 우리는 스페인어를 하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푸루카의 방문 기간 중, 우리는 브리검 영 대학과 솔트레이크 시티의 신전 광장에 있는 방문자 센터를 둘러보았으며, 일주일간 야영을 떠나기도 했다. 우리는 푸루카와 매우 친해졌으며, 그녀는 2개월도 넘게 머무르며, 마르타와 함께 물문경에 대하여 계속 토론했다. 그녀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르타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 프에르토리코로 돌아가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마르

타가 언젠가는 우리를 방문해 주었으면 해요.”

그 뒤 수개월 동안 푸루카와 우리 가족 사이에는 편지 왕래가 자주 있었으나,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다. 푸루카는 독신 여성으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흥분하여 푸루카에게서 온 편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캐를 부인과 폴씨에게

이곳은 지금 이른 아침입니다. 나는 지금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산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돌아오는 길로 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마르타는 고등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이 졸업식에 푸루카는 마르타의 할머니를 모시고 올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인가!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한 십대 소녀가 다른 급우들과 마찬가지로 졸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힘든 장애를 극복해 낸 인간을 졸업식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자신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졌는가를 묻고, 신앙으로 그 큰 시련을 받아들인 딸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지닌 딸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으로 모든 가족을 풍요롭게 한 딸을 보게 될 것이다.

마르타의 할머니는 친 손녀딸을 처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그 또한 마르타의 생각대로 된다면 할머니는 선교사들과 공부하게 될 것이다. *

알코올 중독

(이해와 쾌유를 바라며)



“세계 역사를 통해 보면
악마는
인간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데
술보다도 더 좋은 도구를 찾지 못했다.”

우리 가족은 최근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다. 그 모임은 즐거웠으나 아이들이 초등학교의 활동을 하는 동안, 내게는 좀 거슬리는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지휘자는 별 뜻없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알씩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약을 먹고 나면, 여러분은 크고 예쁜 목소리로 더 크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 효과는 매우 커서 노래하는 시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미묘하게 의도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약이 너무나 흔히 쓰이고 남용되기조차 하는 약물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 아스피린, 감기 치료제, 소화제, 니코틴, 마리화나, 알코올, 히로인 등이 모두 자극을 주거나 긴장을 풀게 해주는 데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떠한 고통이나 불편을 겪게 되어서는 안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 즉 노래부르기를 배울 때조차도 어떤 종류의 가루약이나 알약을 먹거나, 무엇을

마심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처방 조제한 약의 남용이나 합당치 않은 약과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사먹을 수 있는 약은 모두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약물 문제는 알코올 섭취에 있다.

밀튼 알 헌터 장로는 그에 대해 한 마디로 이렇게 잘 요약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보면 악마는 인간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데 술보다도 더 좋은 도구를 찾지 못했다.”(명언 인용문, 에머스 로 이웨스트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10페이지)

이러한 것은 알코올을 금하도록 충고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의 회원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술을 마시는 교회 회원의 비율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작지만, 지체의 말씀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종종 그들 자신과 가족에게 심각한 해를 미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성격상, 가히 비극적이라 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 회원들을 많이 만났다.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떤 사람은 내게 이렇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은
외로움이나 거부감, 두려움, 어색함 또는 실패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이 알코올로 인한 진정 효과로 일시적이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스런 감정이 나중에는 더 커지므로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

게 말했다.

“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내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간청했으나 아무런 소용
이 없게 되자, 그녀는 나와 이혼했고
나는 이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아
무도 더 이상 나를 믿어 주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도, 가족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 “내 음
주벽으로 차 두 대를 망가뜨렸고 집안
이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으면서도
나는 내가 술을 너무 마신다는 것을 인
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 가기를 거
절했습니다.”

한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
했다. “나는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서는 나나 아이들을 심하게
때린답니다. 이런 상태를 얼마나 더 오
래 견딜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사
랑하고 그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 주세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
람이 술을 마심으로써 중요하고 뜻깊은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할 때 친구나 가
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모든 경우를 단 한 가지로 대답할 수
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과 지침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수십 가지의 다른 이유로 술
을 마시게 된다. 그중 몇 가지 이유로
는 호기심, 반항심, 동료의 압력, 대중
매체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기가 쉽다.

1. 알코올 사용으로 일시적인 쾌감을
느낀다. 알코올이 육신에 미치는 최초
의 효험은 주로 편안함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휴식을 주고 긴장을 풀게 하며, 좀더
자연스럽고 개방적이며, 다정하게 되게
한다. (음주자가 그렇게 느낀다.) 일상
적인 것에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술을 마심으로써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은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한다. 알코올의 잔인
한 기만성은 이 점에 있는 것이다.

2. 인간은 일시적인 음주의 쾌감을
계속 가지려 한다. 알코올은 일시적인
쾌감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마시게 되는 것이다.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은 외로움이나 거부
감, 두려움, 어색함 또는 실패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이 알코올로 인한 진정
효과로 일시적이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
스런 감정이 나중에는 더 커지므로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

3. 술마시는 사람의 몸은 알코올에

대한 내구성이 커진다. 결국 자신이 바랐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이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단계가 되면, 자신의 주량과 많은 술을 마셔도 끄덕없이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자랑하게 된다.

4. 음주자는 알코올에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알코올 없이는 어떤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5. 음주자는 좋지 않은 결과로 고통받기 시작한다. 알코올 소모의 빈도와 양이 증가되어, 필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동 생산력도 떨어진다. 가족 관계가 심히 위태롭게 된다. 취중에 차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허튼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당하기도 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버리게 되기도 한다.

6. 음주자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당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 자존심이 사라지고,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 차게 되어, 극심한 감정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7. 음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술을 마신다. 슬픈 현상이지만 과거의 음주 경험은 고통을 더는 방법은 다시 술을 마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점차 피해자는 자신이 타락의 굴레에 빠져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된다. 쾌감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알코올을 마시지 않을 때는 격심한 신체적 반응이 수반되는 심리적인 고통의 악몽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사람이 자주 실망하게 되면, 전적으로 실망과 절망만 느끼게 되어,

자살을 생각하게 되지만, 한편 그는 유일한 도피 수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인 알코올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

음주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친구나 가족이나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 굴레에서 빠져 나오기가 힘들게 된다.

불행스럽게도 그와 관련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의 훌륭한 의도에서 나온 행위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내가 상당한 말일성도 부부인, 존과 수잔의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존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수잔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술을 끊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써 보았다. 그녀는 술병이나 남편의 지갑을 숨기는가 하면, 술마시는 친구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때가 많아지자 그의 그런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곤 했다. 그녀는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명을 했다. “남편이 독감에 걸렸어요, 아무래도 오늘 직장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머리가 아프신 모양이다.”

아이들은 곧 사태를 눈치채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암울하게 되자, 그들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게 되고, 아버지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 주거나 그 행위를 변명함으로써 아버지를 보호하려 들었다.

음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술을 마신다.
슬픈 현상이지만 과거의 음주 경험은
고통을 더는 방법은
다시 술을 마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점차
피해자는
자신이
타락의 굴레에
빠져 들어 가게 됨을
알게 된다.
쾌감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알코올을 마시지 않을 때는
걱심한 신체적 반응이 수반되는

심리적인
고통의 악몽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술을 마심으로써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알코올의
잔인한 기만성은
이점에 있는 것이다.

수잔 역시 감독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어떻게 감독님께 말씀드릴 것인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의 수입원이 없다면, 감독은 그 가족의 식품과 의복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직장 동료들은 그가 하는 일을 돌보아 주거나 나머지 책임도 맡아 주어 존과 같은 사람도 직업을 잃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고용주들은 그를 해고시키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처사로 보고 참아 합당치 못한 행위를 묵인해 주거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의 도움은 대개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가려 주며, 그가 계속 술을 마시도록 편의를 보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존과 수잔의 가정과 같은 가족을 돕는 첫번째 단계는 수잔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지엽적인 행위의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끈기있는 사랑”을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끈기있는 사랑이란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해도 해야 할 일을 하며 당사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겠다.

“끈기있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확실히, 사랑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난 남편 곁에서 밤을 지새우고는 아침이 되어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 준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음주자는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기에 앞서
그릇된 행위
(다시말해서 결과에 대한 고통을 받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런 일이겠는가!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술마신
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엄마
가 술 마셨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기
일쭉인 사람들을 대하여 자신을 지키기
란 어렵다. 실제로 음주자는 능란한 조
종자가 된다. 예를 들면 존은 수잔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자신이 술을 마시
는 것은 그녀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게
한다.

그녀는 상심하였고 점점 더 분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는 그가 실
제로 의도했던 바를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문제성이 있는 술
주정꾼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야, 그녀는 겨우 자
신의 감정을 다스려 더 이상 조정당하
지 않게 되고 그러한 조정에 따르는
악감정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음주자는 변화에 대한 동
기를 부여받기에 앞서 그릇된 행위(다
시 말해서 결과에 대한 고통을 받음)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성도에게 술을 마시지 말
라는 바로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알코
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쁜 태도
를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 음주자를 냉
정하게 따돌리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오

해하는 등의 행위는 음주자에게는 도움
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

존이 교회 활동에 참석했을 때 그에
게서 술 냄새가 나자 가까이 앉아 있던
어떤 부부가 일어나 자리를 옮기는 것
을 보고 그가 어떠한 거부감을 느꼈을
지 생각해 보자. 물론, 언제나 그렇지
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존과 같은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
처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지 모욕이 아니
다.

나는 우리가 음주자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의 자녀이지만, 단지 어떤 문제가 있어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
각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관
심과 인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
이 필요한 예이다.

존의 경험을 테이비드라 하는 말일성
도 십대 소년의 경험과 비교해 보자.

부친에게 공공연히 대들고 반항하던
테이비드는 집에서 차를 훔쳐 냈다. 과
속으로 달리며 기분을 내던 그는 돌아
오다 잘못하여, 차가 여러 번 구르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스럽게도 그와 탑
승했던 사람들은 경상을 입었을 뿐이었
다.

가족과 워드 회원들은 금식하며 데이

어려운 것은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함정에 빠져
아무 곳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지 말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정신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비드의 회복을 빌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자주 찾아 주었으며 특별한 축복을 주었다. 사고를 당한 다른 친구들과 그 부모들도 병원을 찾아와 그가 빨리 회복되기를 빌었다.

데이비드는 약간 다리를 절게 되고 상처가 남기는 했지만, 거의 회복되었으므로 모두들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데이비드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의 인생의 절박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존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경험을 했다. 존이 결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지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방문한 사람은

그의 아내뿐이었다. 와드 회원들은 그의 회복을 위해 금식이나 기도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특별한 신권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가 센터에서 치유되어 나왔으나, 그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맑은 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지 걱정하며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꾸밈없는 사랑과 개인적인 우정, 지속적인 이해심이 다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활도 축복할 수 있음을 알았다.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가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을 곁에서 도와 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가 그 상태에서 회복되었음을 무리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여태까지 지내 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느끼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도 많이 있다.

어려운 것은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함정에 빠져 아무 곳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지 말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정신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은 긴장을 풀고, 조금씩이라도 향상하는 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러한 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희망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물론, 그들은 계속해서 신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축복해 주신다. 또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으로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인내하고 참아 나감으로써 그 가족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가 다시 나쁜 길에 빠진 후에도 계속 사랑하고 격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여전히 적용된다. 그리고 음주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우리 자신의 생활은 향상될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가족이 일찍 도와 준다면 마음 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술선해서 알코올과 그에 중독

되는 과정, 또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방법에 관한 것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지도자, 감독, 기타 관련된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와 음주벽을 고친 회원들을 들 수 있다.

음주자는 위의 인사들 외에도 알코올 중독자 그룹, 병원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 특별 약물 치료 센터, 알코올 해독 센터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습관성 음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 관련 프로그램의 도움은 그에 관련된 가족들이 도움을 청하기만 한다면 거의 어느 사회에서나 활용할 수 있다.

힘들기는 하지만 위의 지침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뜻깊은 과정을 밟아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가족과 다시 결합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

주께서 “인간의 가치가……십히 크”며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0, 15)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 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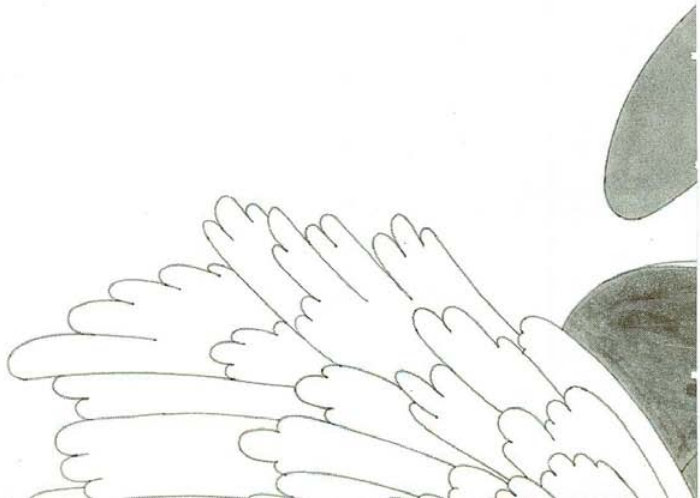
생각만으로는

와 이오밍주의 어느 가을 날이었다. 푸른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웅장한 티톤 산이 짙은 호수에 그림처럼 비친 모습은 158킬로미터나 되는 험난한 스네이크(뱀) 강을 카누로 여행하는 큰 모험을 앞에 둔 우리에게 숨이 막힐듯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강은 야생 생물이 가득 차 있는 황야를 지나 뱀처럼 구불거리며 흘러 내려간다. 그곳에도 도로는 별로 없었고 간간히 오솔길이 나 있을 뿐이었다.

카누 여행을 할 준비를 하며 모란 강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19 소년단 지도자인 아버지들과 그들의 16세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강에 대해 잘 아는 검게 타고 건장한 열 아홉 살 난 젊은이 두 명이 우리의 안내를 맡게 되었다. 한 사람은 선두에서 서고 한 사람은 후미에서 따라왔다. 우

리는 그들이 지시하고 경고하는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려고 애썼다. 그들이 소용돌이에 대해 경고할 때는 일말의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카누와 거기에 탄 사람들은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또한 급류에 들어섰을 때 헤쳐 나가는 법에 대한 지시 사항도 들려주었다. 그 지시 사항의 끝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카누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틀림없이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우리는 양쪽에서 평형을 유지하며 노를 저으려고 애썼다. 쉽게 몸을 움직이고 카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는 내내



충분하지 않음

렉스 시 리브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를 책임지고 있던 나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안전 수칙을 들으면서 어떤 의구심을 품었다. 나는 며칠 전 뉴스 시간에 어떤 아버지가 급류를 지날 때 카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쳐, 구명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되지 못한 채 익사했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선두 안내자가 멋지게 카누를 물 속

으로 밀어 넣더니 힘들이지 않고 강을 미끄러져 나갔다. 그 뒤를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탑승한 카누들이 떠나려가기 시작했다. 참 좋은 날씨였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상쾌했으며 맑고 푸른 하늘에 이따금 흰 뭉게 구름이 피어 올라 주위의 아름다움에 풍취를 더해 주었다. 강물은 맑았으며 잔잔히 흘러 내려갔다. 늘씬하게 늘어난 전나무가 풀과 잡목과 어울려 양쪽 강변을 더 아름답게 해주었다. 처음 16킬로미터는 그저 재미있기만 하여 두렵고 걱정되던 마음은 사라져 버렸다.

그때 앞을 바라보던 우리는 다른 지류가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용돌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합류 지점에 다가가면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갑자기 앞에서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사슴 좀 보세요!” 그 사슴을 보려고 몸을 돌리자 커다란 사슴 뿔이 눈에 들어옴과 동시에 나는 그대로 스베이크 강에 머리를 처박고 말았다.

물은 차디찼으며, 단단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겨우 물 위로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머리를 내밀었다. 천만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내 아들 데이브는 어디 있을까! 우리 카누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는 어디서 찾지?”

나는 강변으로 헤엄쳐 가다가, 오른쪽 앞쪽에서 데이브가 득으로 헤엄쳐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주머니에 들어 있던 일소 방지용 로션과 검은 색 안경과 모자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찬 물 속에서 빠져 나와 다시 카누에 올라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그후로는 누가 수백 마리 사슴을 보라고 소리를 쳐도 우리는 몸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똑바로 앞만 바라보았다. 우리는 길고 긴 급류와 격류 속을 무사히 통과했다. 우리는 왼편도 오른편도 보지 않았다. 사실 어떤 곳은 상당히 물살이 세어 카누 하나가 뒷쪽으로 기울어지려 했다. 그 아버지는 열여섯 살짜리 아들보다 훨씬 무거웠으며 그가 뒷편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카누의 균형을 깰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물에 빠졌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교성 82 : 10)

다시 말하거니와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는 다른 경우지만 여호수아가 모

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열쇠를 주셨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베킴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 : 5, 7)

여호수아는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을 들었다.

힐라멘의 이천 명의 용사들이 성공한 것도 이 비결에 따랐기 때문이다.

“모든 명령에 복종하여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참으로 매사가 저들의 신앙대로 이루어졌느니라.”(엘마서 57 : 21)

그들은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모든 명령에 복종한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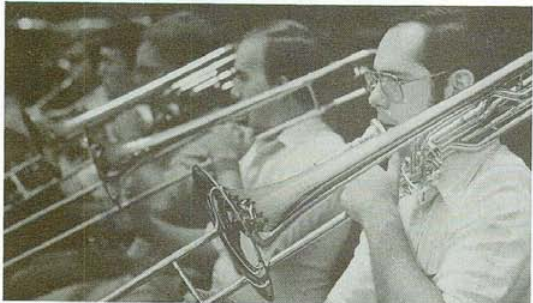
우리는 모든 명령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하자.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우리는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아름다운 화음

캐드린 루빅



음악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발로 박자를 맞추고 머리를 끄덕이며, 어린이들은 의자에 리듬을 친다. 음악으로 홀 안의 분위기는 따스해지고 사람들은 환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간다. 음악회는 너무도 빨리 끝이 난다. 청중들은 환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며 “부라보” “앙코르”를 연발한다. 그러면 단원은 한두 곡을 더 부른다.

물론 유스 심포니 합창단은 행진곡이나 디스코나 낭만적인 인기 곡목을 연주하거나 “주님은 내 목자니”를 평화롭게 부르거나간에 청중들을 특별히 매료시킨다. 그 매력의 일부는 음악 자체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것에 있다. 청중들은 이 연주 단원이 일반 연주 단체와

는 같지 않다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된다.

“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시카고 심포니가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 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유스 심포니가 “더 파인스 어브 롬”을 연주하는 것을 방금 듣고 난 음악 교육자회의 한 회원이 한 말이었다.

“연주 단원의 젊은이들이 뛰어난 음악가들이어서 만이 아니라, 그들이 훌륭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이 젊은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음악회에 참석했던 비회원이 한

말이다.

사실 그들은 법학도, 의학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은행 직원, 전기 기술자, 정원사, 교사, 화초 연구가, 인쇄업자, 회계사 등 16세 내지 30세 사이의 각종 직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지만, 375명이 모두 훌륭한 음악인들이다. 그리고 가장 특기할 사항은 그들은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감동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단순한 음악적인 동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입단하게 된 동기는 음악을 선교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단원들과 함께 태버나클에서 독주를 하기도 한 바이올린 제일주자인 케빈 콜이 한 말이다.

합창단원으로 노래를 부르는 재니스 콜도 이에 동의할 표한다. “훌륭한 연주를 할 때는, 성령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재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단원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지요.”

“연주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숭고한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케이의 브로드벤트가 한 말인데, 그녀의 세 자매들도 역시 물론 유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러 왔다. “다만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마음속에 지극히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이 미치는 영향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매달 물론 유스 사무실에는 단원들을 것처럼 특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문의하고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들이 물론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의 태도 변화와 개종자의 수만 보고서도 헤아릴 수 있다.

교회에 가입한 이후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어느 자매는 어머니를 음악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도록 설득하였다.

그 음악회에 참석한 뒤 교회에 대한 그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딸은 그렇게 말했다. 3년 동안 교회에 대하여 공부해 왔던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물론 유스 연주 공연을 듣고 난 뒤에 교



회에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또한 켈리 포니아주 모데스토에 거주하는 어떤 부부는 물론 유스 공연을 두 번 본 뒤 성령의 영감을 크게 받고 교회에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단원들이 미치는 영향은 국제적으로도 역시 대단하다. 물론 유스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은 프랑스에서 공연이 허용된 첫번째 말일성도 공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실황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후에 공연 프로그램을 세 개 더 요청받았다. 프로그램의 일부가 노르웨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자 그 전까지만 해도 노르웨이 있는 선교사들에게 문을 닫았던 수많은 가정에서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7월 4일에 미국에서 방영된 미 독립 200주년 기념 특별 공연은 전국적으

로 시청률 3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을 본 한 부유한 뉴욕 시민은 이들 단원들을 모두 소련으로 관광시키겠다고 제의해 오기도 했다. 이처럼 단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교 사업에 도움을 준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매주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만으로도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에서 1억 4천 4백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바우든 지휘자의 말이다. “또한 일년에 20여 회의 연주회를 갖고 보통 1,2회의 텔레비전 특별 공연을 합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 지역 에미상을 수상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쁜 공연 일정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연습 모임 때문에 음악가들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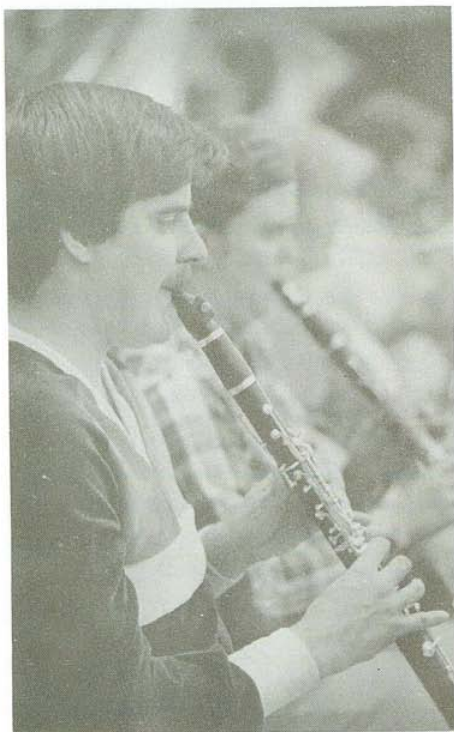
바로 그런 이유에서 물론 유스 단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부름을 받는 것이 된다.

바우든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유스는 사회적인 단체가 아니라 일하는 단체입니다. 나는 음성 테스트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회적인 이유로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이라고 말해 준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선교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전에 한 번 연습하고 난 뒤에 다음 번에 레코트 취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고도로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며, 악보도 잘 보아야 합니다. 단원들이 해내는 일에 나도 경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전문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원들이 여행을 할 때는, 각종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대개 그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공연하며, 여행을 계속하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음식을 먹는가 하면, 수면 시간도 부족하므로



상당히 피로를 느끼게 된다.

앨토 파트의 린다 테일러의 말이다. “여행중에 가장 힘든 것은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공연장에 서게 되면,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요.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노래할 때마다,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낀답니다.”

대개 식사는 와드 오락실에서 하거나 또는 민박 가족과 함께 하기도 하며, 아니면 그들이 방문한 도시에서 자자 음식을 사 먹기도 한다. 레이 퍼거슨 단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곱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야 할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식당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여정에 오르려면 긴 계획서가 필요하답니다.”

민박은 여행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테너 파트의 짐 라모로는 이렇게 말한다. “관광도 재미있지만 나는 여행할 때 말일성도 가정에서 민박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친 자식처럼 대해 주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환영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날 때는 평생지와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대개 그렇듯이, 단원들은 민박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에도 특별히 눈길을 끈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주 여행을 마칠 때, 일곱 명의 버스 운전 기사(몇 명은 말일성도이고 몇 명은 아님)들이 모두 모여서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훌륭한 단원들과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는 여성 단원들에게 드릴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14타스나 되는 장

미가 젊은 숙녀들에게 돌아갔다.

바우든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듣거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은 때에 따라서는 악마를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조심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며, 그들이 하는 일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영의 도움을 받아 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악보를 손에 들면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해낸답니다. 그것은 청중에게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그 음악을 느끼며 속삭이듯 ‘저 소리 좀 들어 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각 단원들도 모두 그에 동감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단원에 가입하기 위해 일년 반씩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그들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토요일 아침을 연습하는 데 기꺼이 바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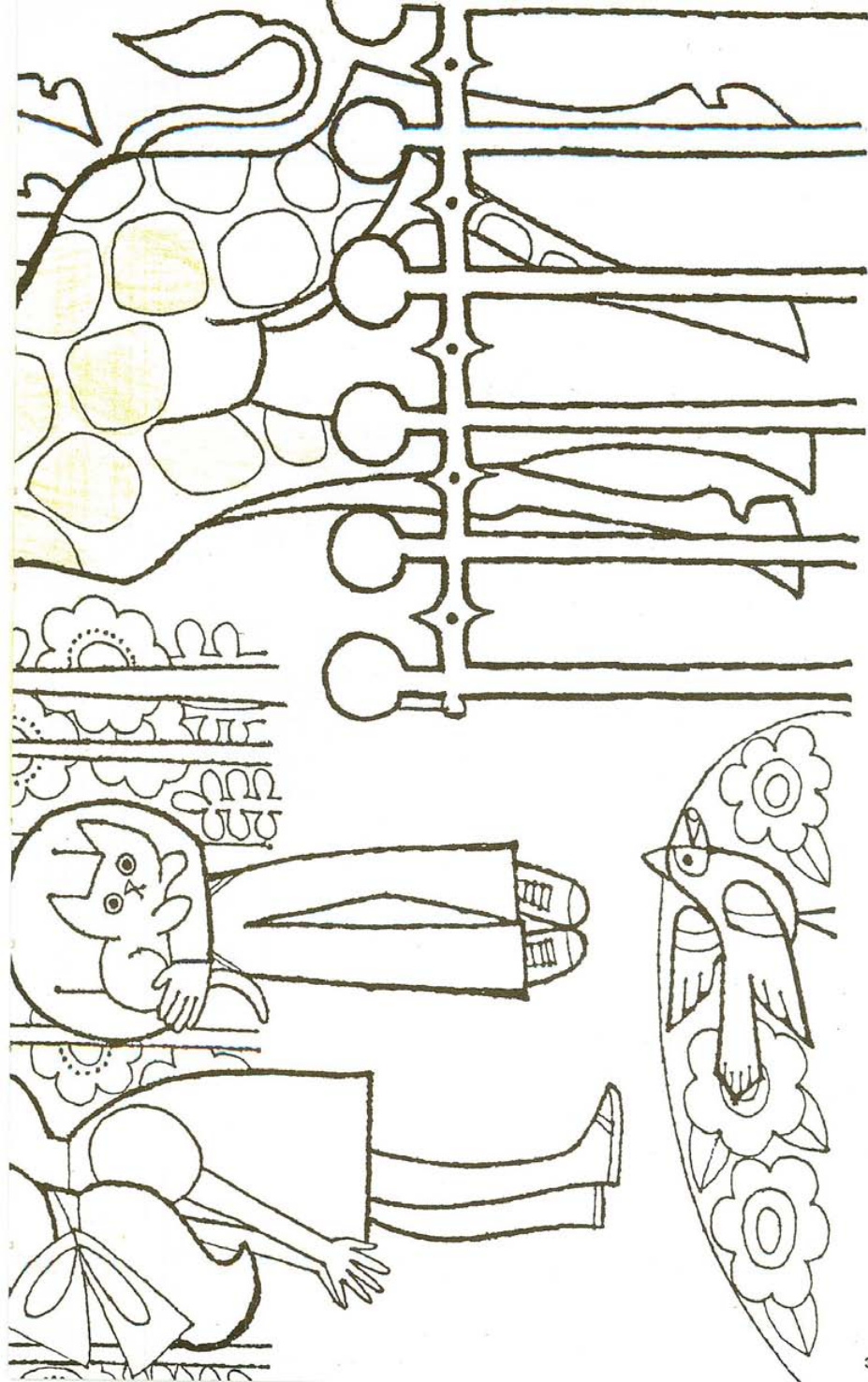
타악기 연주자인 스티브 던킨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유스 심포니에서 연주함으로써, 나 스스로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행복감과 내가 심포니에서 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내 온 전신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늘로 향해 나가는 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에 바치는 희생과 오랜 시간은 참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심심풀이

동물원 구경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과 오늘 우리가
본 동물들을 색칠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색깔을 사용할 수 있지요?







꿀벌 마차

아일린 시 블랙



원이라는 자기가 들고 있는 잎이 무성
한 나뭇 가지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었지만, 웅웅거리는 소리로 부근에
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나뭇
가지를 떨어뜨리고 햇빛 가리는 모자를
머리 뒤로 푹 눌러 썼다.

“월라야, 이리온. 너한테 보여 줄 게
있다.”라고 할아버지가 부르셨다.

월라는 할아버지께 갈까말까 망설였
다. 할아버지는 사룬 마차에 묶어 놓은

짚으로 된 여러 개의 벌통 옆에 서 계
셨다.

“월라야! 이리 오너라. 꿀벌들이 오
늘은 너무 바빠서 너를 생각할 틈도 없
단다. 벌은 꿀을 많이 모아 들여야 하
거든.”

월라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가 서 계
신 곳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녀는 한때의 꿀벌이 한
벌통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벌들이 저렇게 몰려 있으니 곧 새로운 폐를 이루겠구나. 저러다가 여왕벌이 날아가면 많은 꿀벌들이 그 뒤를 따르단다. 그 벌들이 떠나 버리면 새 여왕벌이 남아 있는 벌들을 위해 알을 낳단다.”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윌라가 물었다. 윌라는 얼굴 주위를 뒹뒹 거리며 날아다니는 꿀벌을 찰싹 때려 주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아마 가까이에 있는 나무로 갈게다. 벌들은 그곳에 모여서 정찰대를 내보내 새로운 집을 찾게 한단다. 우리가 새 벌통을 만들어 그 벌들을 모아 들여 다시 마차로 되돌아오게 해야겠다.

“어떻게 그 벌들을 새 벌통으로 끌어 들일 수 있지요?” 윌라가 물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뒤를 따라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천천히 마차에서 움직여 갔다.

“벌들이 작은 가지에 모이면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서 벌통으로 옮겨 놓는단다. 그리고는 벌통 위아래를 돌려서 흔들어 주는거지.”

“그렇게 수천 마리나 되는 벌떼 가까이 있었다니 놀랍구나.”하고 윌라는 생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나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민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속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녀는 할아버지가 도와 달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포장 마차를 모으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제 친구 커트가 분봉하는 벌떼를 새 벌통으로 나르는 일을 도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희망을 걸듯 말했다.

“벌들이

작은 가지에 모이면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서
벌통으로 옮겨 놓는단다.

그리고는

벌통 위아래를 돌려서
흔들어 주는거지.”

“꿀벌들은 날아가기 전에 몸에 꿀을 가득 담아 가지고 있단다. 꿀을 가득 가지고 있는 꿀벌은 꼬리를 구부려 쏘기가 어렵단다.” 할아버지는 윌라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격려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가지를 주워 모아 마차 위에 있는 히코리 나무 틀에 놓기 시작하셨다.

“솔트레이크 계곡까지는 꽤 먼 길이 남아 있단다. 그곳에는 꿀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과일 나무에 꽃가루를 묻혀 주기 위해 우리 꿀벌을 가져 가야 해.”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윌라야, 내 생각에는 네가 꿀벌 다루는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니? 새로운 벌통을 만들기 위해 네가 마른 기다란 풀을 많이 모아 왔으면 좋겠다. 나는 강가로 내려가 묶을 수 있는 끈이 있는지 찾아보아야겠다.” 마차로 걸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윌라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말씀하셨다.

그날 오후에 윌라는 마차 그늘 속에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 할아버지가 벌통 만드는 것을 보았다. 커트도 구경하려고 그의 마차에서 왔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

런 벌통을 스킵이라고 한다. 나의 부친께서 내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지금 내가 짚을 잡아당겨 묶을 때 사용하는 이 뼈 바늘도 아버지가 주셨단다.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오실 때 꿀벌을 가져 오셨단다.”

그리고 “야벳의 동생처럼 말이지.”라고 덧붙이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약속된 땅으로 이주할 때 거룻배로 꿀벌을 날렸대요. 나는 이더서에서 그것을 읽었어요.”라고 커트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다음 성구를 인용하셨다. “‘데서레토도 가져 갔으니, 번역한 즉 꿀벌이라. 이같이 꿀벌 떼……를 가져 갔더라.’”(이더서 2:3)

다음날 아침 윌라는 어머니가 벌꿀색의 긴 머리를 벗겨 주시는 동안에 마차에 앉아 있었다. “엄마, 나는 꿀벌이 무서워요. 내가 벌에 쏘였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결코 잊지 못할거예요.”하고 그녀는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꿀벌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벌이 쏘지 않을거야.”라며 어머니가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서운데요.” 윌라가 웅얼거리며 말했다.

“때로는 무서워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바보들이나 무서운게 아무것도 없지. 용감한 사람은 무서울 때에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윌라는 어머니가 머리를 따서 왕관 모양으로 만져 주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들어봐라. 벌이 물려들고 있구나.”

윌라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벌떼들이

수레 주위로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부르세요! 내가 벌떼를 따라가겠어요!”라고 외쳤다.

벌들은 강가에 있는 큰 나무로 날아갔다. 윌라는 달려서 쫓아갔다. 윌라는 머리 위의 나뭇 가지에 벌들이 무더기로 득실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새 벌통과 나무 판자를 가지고 오셨다. 벌통 안에는 장갑 한 켤레와 면 망사로 덮어 씌운 테가 넓은 모자가 들어 있었다.

“윌라야, 너는 용감한 소녀지. 너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벌떼들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윌라는 나무를 쳐다보았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수천 마리의 벌떼들을 보자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커트를 데려오겠어요.” 그녀는 재빨리 마차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그러나 몇 분 후에 그녀는 짧은 바지를 입고 되돌아왔다. 그녀는 달려오느라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커트가 아프대요. 그가 올 수 없어서 대신 이 바지를 빌어왔어요. 제가 나무에 올라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윌라에게 모자를 씌어 주셨다. 그는 망사 그물을 윌라의 어깨와 목에까지 내려 꼭 맞게 해주셨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할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꺼내 주신 칼을 받아 들었다.

“애야, 잘 명심해라. 벌들은 지금 기분이 좋단다. 그리고 꿀을 가득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네가 나뭇 가지에 있는 꿀벌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벌이 다시 날아가 버린단다.”
라고 할아버지가 주의를 주셨다.

윌라는 나뭇 가지에 앉아서 꿀벌들이 붙어 있는 작은 가지에 닿을 수 있었다.

그녀가 줄기를 꺾자 꿀벌들이 장갑 위와 블라우스의 긴 소매 아래로 모여 들었다. 벌들은 윌라의 머리 주위에서 웅웅거렸고 모자 위의 망사에 앉기도 했다.

그녀가 가지를 꺾어 아래로 내려올 때 벌 한 마리가 장갑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손이 화끈하고 따가웠다. 그녀는 그만 나뭇 가지를 놓쳐 버렸으며, 나뭇 가지가 벌떼와 함께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열려 있는 벌통으로 그것을 잡아 넣었다. 그리고는 안에 꿀벌이 들어 있는 벌통을 뒤집어 엎어서 판자 위에 놓으셨다.

“됐다.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도록 하자.” 할아버지가 윌라의 옷에서 벌을

꿀벌들은
근면과
조화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단다.

떼어 내시며 말씀하셨다. “지녁 때까지 꿀벌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가면 수레로 다시 나를 수 있을게다.”

그날 밤 늦게 윌라는 할아버지를 도와 벌통을 나르며 생각했다.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엄마가 말씀하신 것은 옳아.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어.” 그녀는 감동된 음성으로 크게 말했다. “할아버지! 세익스피어가 ‘비겁한 자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자는 한 번밖에 안 죽는다.’고 한 말 기억하시지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 나무에서 적어도 천 번은 죽었을거예요.”

“윌라야, 그렇지만 너는 아주 용감했다. 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너한테 꿀벌이 든 이 벌통을 주겠다.”

벌통이 수레에 다 묶여지자 윌라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도 이것을 야렛의 꿀벌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데세레트라고 부르면 어떻겠어요?”

“윌라야! 그것 참 좋구나.”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아주 어울리는 이름인걸. 꿀벌들은 근면과 조화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단다. 그 이름이 꼭 들어맞는구나.” 하고 덧붙였다.

윌라는 할아버지가 벌통 입구에 망을 씌우고 수레를 마차에 잡아매어 아침에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다 끝나치시고 나서 잠시 동안 벌통들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갔다. “데세레트” 윌라는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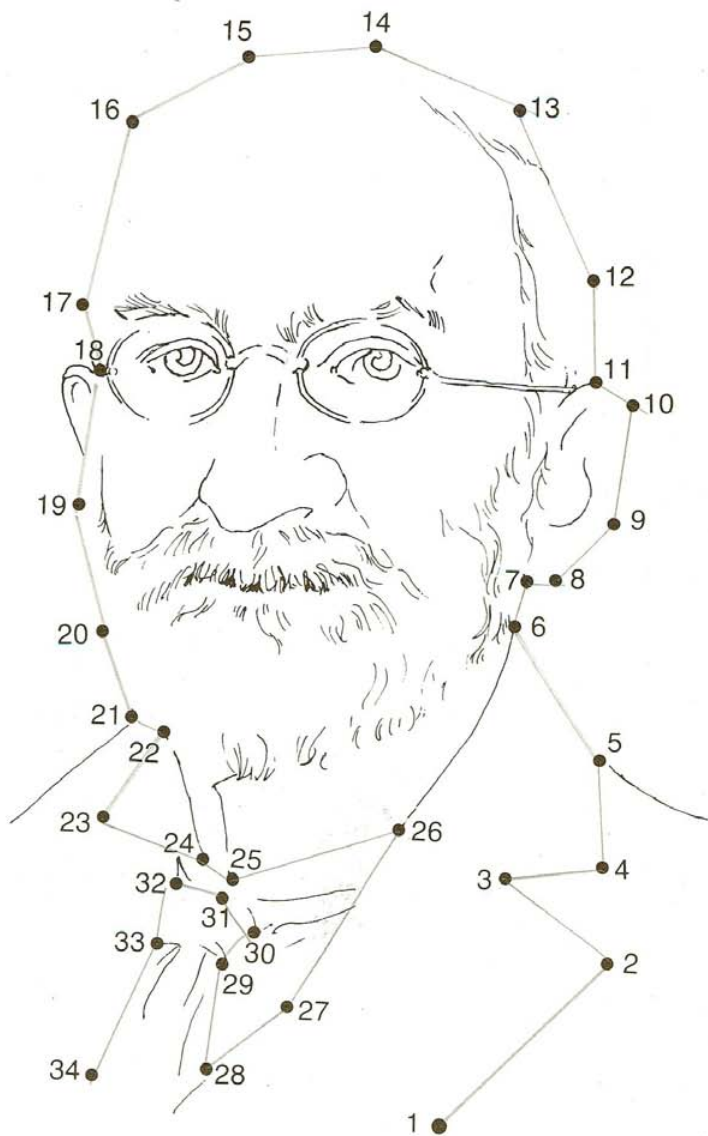
윌라는 손의 따끔따끔한 부분을 만져 보았다. 그것은 벌써 많이 나아졌다.*



히버 제이 그랜트

하워드 바우너

1856-1945



히버 제디 그랜트는 태어난 지 아흐레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 제디다이아 엠 그랜트가 폐렴으로 한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마흔 살밖에 되지 않은 제디다이아는 교회의 충실한 선교사로 봉사했었으며, 브리감 영의 제 2 보좌와 솔트레이크시티의 초대 시장을 지낸 바 있다.

소년의 어머니 레이첼 그랜트는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제디를 키우기 위해 샅바느질과 하숙업을 했다.

제디가 여섯 살 쯤 되었을 때, 그는 지나가는 썰매에 매달려 한두 구역쯤 타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한번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썰매에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 브리감 영은 원래 빨리 물기를 좋아했다. 여러 해 지난 뒤 제디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썰매가 하도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 달려갔으므로 감히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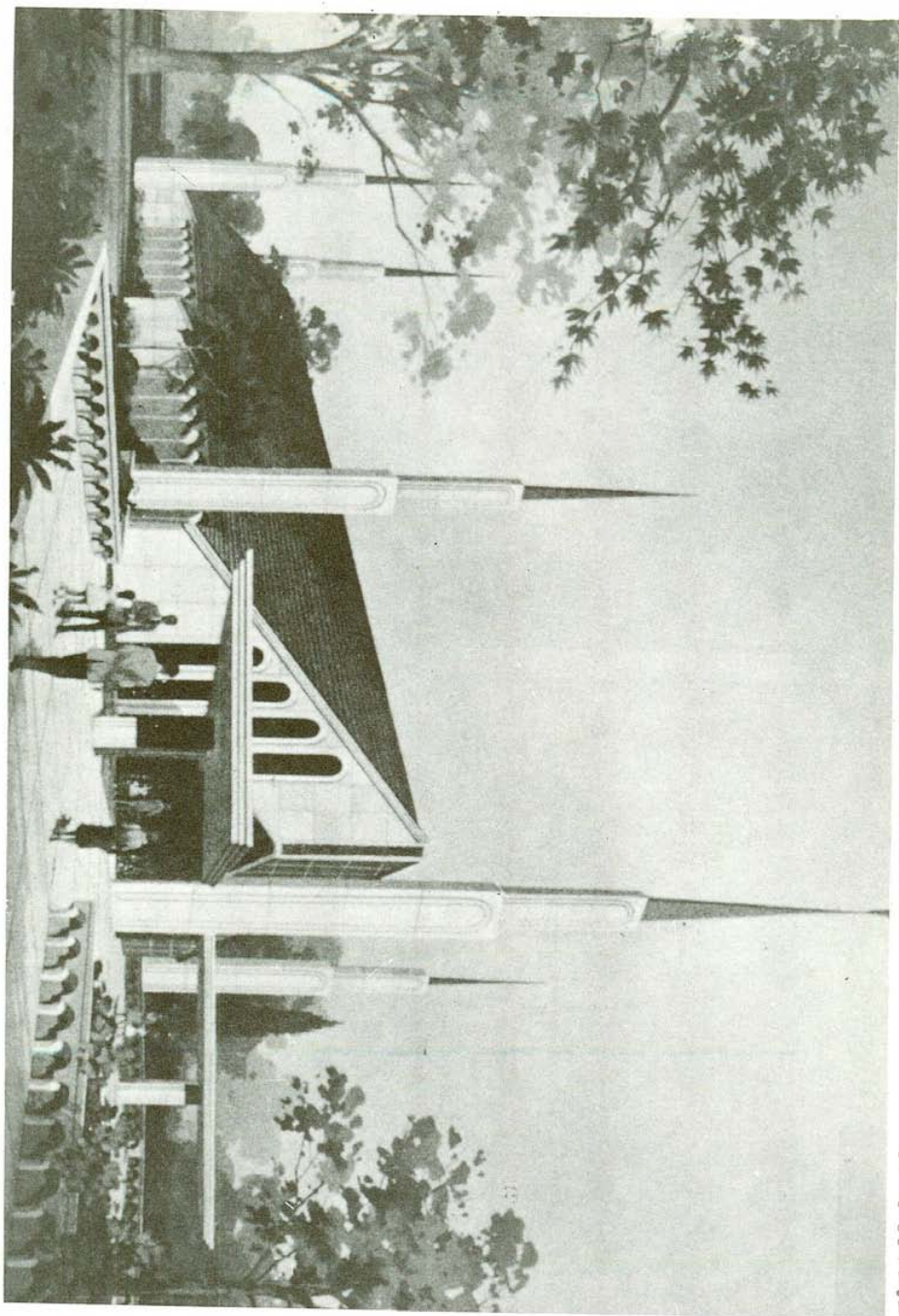
“영 대관장님은 내가 그분의 썰매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고는 즉시 ‘아이작 형제! 멈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썰매를 모는 아이작 윌슨에게 나를 데려다 앞 자리에 앉히고 기다란 옷자락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라고 하셨습니다. 영 대관장님이 ‘이젠 따뜻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예’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내 이름과 사는 곳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매우 다정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를 몹시 사랑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중에 그의 사무실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디 그랜트는 브리감 영을 다시 방문했으며, 그후 자주 그를 찾아갔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친이 살아 계시어 사랑을 주고 받았다면, 부친과 나누었을 그러한 정과 똑같은 정으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제디는 교회 일로 봉사할 때에도 자기 사업처럼 열심히 일했다. 그는 23세 때 투엘레 유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25세 때는 교회의 사도가 되었다. 또한 1901년에는 일본에 새로운 선교부를 개설하도록 부름받았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1918년에 제 7대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아 26년 동안 그 직에서 봉사하였는데 브리감 영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한 분이다. 그분의 영적인 지도력과 훌륭한 사업 능력으로 그분의 재임 기간 중에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는 1945년에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한국 서울 신전의 모형도

